

27. 유배(流配)의 한(恨) 맺힌 대정(大靜) 고을⁵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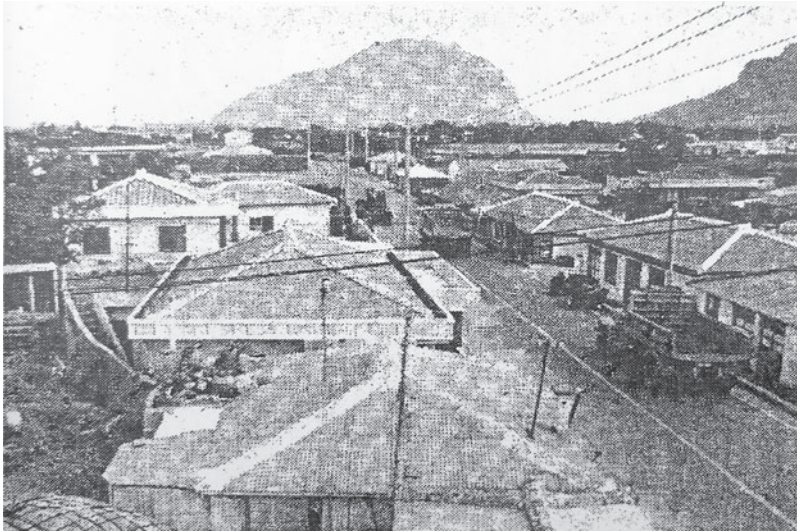
◎ 이름난 국사범(國事犯)들이 귀양 살아

◎ 정난주(丁蘭珠)가 가슴에 묻고 간 영원의 비밀(秘密)

조선시대 제주도의 삼읍(三邑) 가운데 하나였던 대정현(大靜縣)은 어느 지방과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을 지닌 고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는 국운이 기울던 조선시대 말에 연이어 일어났던 민란(民亂)들이 거의 이 대정을 기폭제(起爆劑)로 하여 일어났던 사실이다. 다음 또 하나는 가까스로 죽음의 고비를 넘긴 중죄인들의 객창(客窓)의 시름을 달래던 유형지(流刑地)였던 사실이다.

53) 『한라일보』 제160호 (1989. 10. 28).



! 유배인(流配人)들의 객촌(客村)이었던 대정(大靜) 고을 ! 그들이 살았던 적가(謫家)들은 지금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고 다만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가 귀양 살던 자리에 비(碑)와 추사관(秋史館)이 세워졌다. 멀리 산방산(山房山) 만이 옛 모습을 그대로 남기고 있다.

중유형(重流刑)의 원악지(遠惡地)

조선시대의 유형제도(流刑制度)를 보면 원근법(遠近法)이 채택되어 2천리에서 2천5백리, 3천리까지 3등급으로 나누었다. 제주의 삼읍(三邑)은 모두 3천리 형에 해당되었다. 죄인은 원악지(遠惡地)에 귀양 보낸다는 가벌(加罰) 정신에 따라 시행했으므로 대정(大靜)은 바로 그 원악지였다. 그리하여 이름난 많은 국사범(國事犯)들이 유배되었던 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유배인들의 객촌(客村)이 되었던 대정 고을을 보기로 하자.

조선시대 5백여 년 동안 대정현에 유배된 사람은 약 1백명 안팎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 가운데 저명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으로 유배된 국사범만도 50~60에 이르고 있다. 다음에 연대순으로 그 이름을 들어 보기로 하겠다.

연산군 때

김순손(金舜孫)[내관(內官)].

중종 때

이세번(李世蕃)[도사(都事) · 학자].

광해군 때

이홍로(李弘老)[경기감사(京畿監司)]

정온(鄭蘊)⁵⁴⁾[정언(正言) · 대사헌(大司憲)]

정충남(鄭忠男).

인조 때

홍무적(洪茂積)[형조판서(刑曹判書) · 우참찬(右參贊)].

현종 때

신명규(申命圭)[집의(執義) · 학자].

54) 신문에는 ‘鄭蘊’으로 되어 있다. ‘鄭蘊’으로 바로 잡음. 이하 동일 인물 오기 한 자 모두 바로 잡음.

숙종 때

류혁연(柳赫然)[훈련대장(訓練大將) · 판서(判書)]

장희재(張希載)[총융사(摠戎使) · 장희빈(張禧嬪)의 오빠]

민암(閔黯)[남인(南人)의 영수 · 우의정(右議政)]

이동설(李東畲)[내관(內官)]

신우석(申遇碩)[내관(內官)]

김준완(金峻完)[내관(內官)]

박중경(朴重慶)[내관(內官)]

송상주(宋尙周)[전직(典籍)]

오시복(吳始復)[판서(判書)]

경종 때

신임(申鎰)[판서(判書) · 좌참찬(左參贊)]

임창(任敞)

영조 때

서종하(徐宗廈)

김요경(金堯鏡)

윤지(尹志)[지평(持平) · 어영대장(御營大將) 윤취상(尹就尙) 아들]

임천대(林天大) 등 4명[윤지(尹志) 벽서 사건 관련자]

임징하(任徵⁵⁵夏)[장령(掌令) · 학자]

조관빈(趙觀彬)[대사헌(大司憲) · 대제학(大提學)]

55) 신문에는 미(微)로 되어 있다. 징(徵)으로 바로 잡음.

권영(權瑩)[지평(持平) · 대사간(大司諫)]

이규채(李圭采)[참판(參判) · 대사헌(大司憲)]

민창수(閔昌洙)

김시옥(金時煜)

권진웅(權震應)[학자]

목덕성(睦德成)[목호룡(睦虎龍) 아들]

신치하(申致夏)[내관]

신응현(申應顯)

조중명(趙重命)[장령(掌令)]

한광조(韓光肇)[승지(承旨) · 대사헌(大司憲)]

김치구(金致龜)

송문재(宋文載)[대사헌(大司憲) · 함경감사(咸鏡監司)]

이성술(李聖述)

임관주(任觀周)[도정(都正) · 학자]

강지환(姜趾煥)

황덕혜(黃德惠)[황경룡(黃景龍) 누이 · 왕손 보모]

이인(李裨)[은언군(恩彦君)]

윤숙(尹塾)[판서(判書) ·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심익운(沈翼雲)[지평(持平)]

정조 때

노성중(盧聖中)

김우진(金宇鎭)[이조참의(吏曹參議)]

유언호(兪彦鎬)[좌의정(左議政) · 관중추부사(判中樞府事)]

승(僧) 신규(信圭)

순조 때

정난주(丁蘭珠)[정약현(丁若鉉) 딸 · 황사영(黃嗣永) 처]

헌종 때

김정희(金正喜)[참판(參判) · 서예가] 등이다.

글을 남긴 문인(文人) · 학자(學者)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들은 거의 역사적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다. 이들 가운데는 정승 서열에 있는 사람만도 넷이나 되고 대신급 이상이 13명이나 된다. 특히 서도의 대가를 비롯하여 문인, 학자 등 당대의 저명한 인물들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는 아예 제주도 낙향조(落鄕祖)가 되어 후손을 잇게 한 사람, 제주에서 죽어 한(恨)을 제주 땅에 묻은 사람, 또는 의금부(義禁府)로 붙들려 가 죽은 사람 등 많은 사연을 남기고 있다.

또 구사일생으로 온갖 고난 끝에 풀려 돌아간 사람도 많았는데 그 가운데는 문집(文集) 등을 통하여 제주도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긴 사람도 적지 않다.

대제학(大提學)을 지낸 회헌(晦軒) 조관빈(趙觀彬)을 비롯하여 동계(桐溪) 정운(鄭蘊) 백석(白石) 홍무적(洪茂積) 묵재(默齋) 신명규(申命圭) 서재(西



| 동계 정은 유허비(대정 보성초교 정문 옆)
 | 정은은 광해군의 인목대비 폐비를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1614년 제주 대정현에 위리 안치됨. 비석은 1842년 제주목사 이원조가 세웠다.



| 서재 임징하 유허비(안덕 감산리) | 임징하는 소론파를 탄핵하고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1727년 제주에 유배되었다. 비석은 1862년 제주목사였던 그의 5대손 임헌대가 세웠다.

齋) 임징하(任徵夏), 임관주(任觀周), 추사(秋史) 김정희(金正喜) 등이 그 대표적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종 때의 이세번(李世蕃)은 기묘사화(己卯士禍) 때 조광조(趙光祖) 등을 옹호하였다가 화를 입고 유적(流謫) 되었는데 1526년(중종 21) 적지(謫地)인 대정읍에서 죽었다. 그의 부인과 자손이 그대로 눌러 살게 되어 고부(古阜) 이씨(李氏)의 입도조가 되기도 하였다.

사사(賜死)된 대신(大臣)들도

연산군의 방종을 극간하여 유명한 일화를 남겼던 김순손(金舜孫)도 제주 민호(民戶)에 편입되어 뼈를 이 땅에 묻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내관이었으므로 후를 남길 수는 없었다.

1680년(숙종 6)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때 귀양 왔던 류혁연(柳赫然),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유배되었던 민암(閔黯) 등은 적소에서 사사(賜死)되어 유한(遺恨)을 제주에 남긴 사람들이었다.

대정에서 생애를 마친 사람 가운데는 정난주(丁蘭珠, 세례명 마리아)의 슬픈 사연도 있다. 정약현(丁若鉉)의 딸로 정약용(丁若鏞)의 조카딸이었던 그는 천주교가 박해받던 1801년(순조 1) 신유사옥(辛酉邪獄) 때 유배된 사람이었다. 백서(帛書) 사건으로 유명한 남편 황사영(黃嗣永)은 스물일곱으로 옥시형을 당하여 죽고 온 집안이 피해를 입었다.

그때 그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아 귀양을 떠나게 되었다. 배가 추자도(楸子島)에 들리게 되었을 때 그는 어린 외아들 황경헌(黃景憲)을 뱃사람에게 부탁하여 이름도 숨긴 채 추자도의 어느 집 대문 앞에 두고 떠났다. 온 식구들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 본 그는 오직 이 외아들만을 살리고 싶은 일념이었다.

이 모자의 이별은 영원한 이별로 끝났다. 대정에 유배된 그는 서문(西門) 밖 김석구(金錫九) 집에서 노비로 귀양살이를 하였다. 어느 날이고 아들을 잊은 날이 없었지만 아들에게 미칠 위해를 생각하여 소식조차 묻지 않았다. 혼자서 가슴 깊이 간직한 이 처절한 비밀을 끝끝내 가슴에 매장한 채 그녀는 세상을 하직했다.



| 정난주 묘역(대정 신평리) | 1801년 신유박해 때 유배된 정난주의 묘소를 1994년 성역화 사업을 벌여 조성. 그녀는 다산 정약용의 조카딸로 황사영의 부인이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그녀의 가슴에 묻고 간 이 비밀을 캐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런 단서도 캐내지 못하고 있다.

적가(謫家)는 모두 없어져

(1989년 10월) 26일 오후 필자는 이 사연 많은 대정 고을을 찾아보았다. 그녀가 살았던 서문 밖 집은 이미 없어진지 오래였고 그 집의 후손 [남제주군수를 지낸 김서연(金瑞燕)씨 집안]들은 제주시로 이사해 버리고 없었다. 다만 모슬봉 북쪽 솔동산에서 천주교인들이 확인했다는 그녀의 무덤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 추사기념관(대정 안성리) ! 1840년부터 9년간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했던 추사 김정희 적거지에 2010년 건립. 추사 적거지는 2007년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487호로 승격되었다.



! 추사 김정희 적려 유허비(대정 안성리) ! 추사기념관 후면에 1977년 ~에서 건립. 연봉 홍증시의 서체로 세웠다.

동계 정온이 귀양 산 막은 골 집도, 추사 김정희가 살았던 송계순(宋啓純)이나 강도순(姜道淳) 집도 지금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다만 추사가 적거했던 자리에 옛 적가(謫家)가 복원되고 유허비(遺墟碑)와 추사관(秋史館)이 세워져 어찌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啓純)이나 강도순(姜道淳) 집도 지금은 모두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 다만 추사가 적거했던 자리에 옛 적가(謫家)가 복원되고 유허비(遺墟碑)와 추사관(秋史館)이 세워져 어찌다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고 있었다.